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幷治 第十六에 對한 研究

윤주헌·박금숙¹·권미자·임동국·정헌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진단학교실, 1: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Terror and Palpitation due to Fright and the Several Hemorrhagic Diseases' in Synopsis of Golden Chamber

Ju Heon Yun, Kum Sook Park¹, Mi Ja Kwon, Dong Kook Lim, Heon Young Jeo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This Chapter mentioned Terror and Palpitation due to Fright(驚悸) and Hemorrhagic disease(血證). Terror and Palpitation due to FrightAcctually Terror(驚) is different from Palpitation(悸). Terror(驚) is one of the seven emotions. But in this case, It refer to the Palpitation and the uneasiness of mind due to one's hearing a strange sound of seeing a strange. Tremulous Pulse can be appear. So Terror(驚) is caused by Exopathic Factors(外因) and belongs to Excess syndrome(實證). Palpitaion(悸) is the sensation of plamus, palpitation and unrest not because of being frightened. It is usurally caused by the deficiency of Ki(氣) and blood(血). So Deep, Thready and weak pulse can be appear. So Palpitaion(悸) is caused by Endopathic Factors and belongs to Deficiency Syndrome. In this Chapter, Terror and Palpitation due to Fright(驚悸) treat with the Kyeji-ke-jakyak-ka-chokchil-moryu-yongkol-kuyuk-tang(桂枝去芍藥加蜀漆牡 蠣龍骨救逆湯) and Banha-mahwang-hwan(半夏麻黃丸). There are two type in Hemorrhagic disease(血證). One is bleeding(出血) and another is blood stasis(瘀血). The contents which relate with the Hemorrhagic disease(血證) are Hematemisis(吐血), Rhinorrhagia(衄血), Hemafecia(下血). In hemorrhage pathological mechanisms, there are two mechanisms. One is that Fire and Heat(火熱) pressure blood. Another is that cold and deficiency(虚寒) disable Ki(氣) from keeping blood flowing within vessels. Blood stasis(瘀血) can be called Extravasated Blood(惡血), Coagulated Blood(衃血), Blood retention(蓄血,積血), Dead Blood(死血) and Emaciation due to Blood disorder(乾血). It refer to a morbid state of unsmooth circulation and blood stagnancy often resulting from Ki(氣) stagnation, Ki(氣) deficiency and accumulation of pathogenic coldness. The symptom of Blood stasis are 'Fullness sensation in the chest, Lip Flaccidity, Cyonotic Tongue and Dryness of Mouth'. And the man who have Blood stasis, want to rinse his mouth with the water, but he can't drink the water because there isn't interior Heat of Excess Type. The symptom of Cyonotic Tongue(舌青) had influence on diagnosing Blood stasis(瘀血) in offspring.

Key words: Terror, Palpitation, Fright, Hemorrhagic diseases, Synopsis of Golden Chamber(金匱要略)

서 론

『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第十六』은 驚・

* 교신저자 : 정헌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E-mail : jikjae@wonkwang.ac.kr, · Tel : 063-850-6808

·접수 : 2008/01/14 · 채택 : 2008/01/21

悸・吐血・衄血・下血과 瘀血 등의 病을 논술한 것으로 上記의 病證들이 心・血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 편으로 논술하였다. 전체의 내용은 驚悸와 血證으로 구분되며 비록 驚悸로써 제목의 첫머리를 삼았지만 吐血・衄血・下血의 出血病證과 瘀血에 대하여 重點的으로 논술하였으며, '胸滿'이 題目에 들어가 있으나 이는 단지 瘀血의 한 가지 症狀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17條文으로 構成되어 있고, 그 가운데 5개의 條文에는 處方이 있으며 그 가운데 湯劑가 3개, 丸劑가 1개, 散劑가 1개가 있다.

『素問·擧痛論』에 "놀라면 마음이 의지할 곳이 없고 神이돌아갈 곳이 없고 思慮가 一定하지 않으므로 氣亂하게 된다"1)고하여 驚悸와 類似한 記述이 있으나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 비로소 驚悸의 病名이 確立되었다.2)

'驚'은 外部로부터 刺戟을 받아 일어나는 것으로 後世에는 '驚悸'라 하였고, '悸'는 氣血虛弱으로 인하여 患者 自身만이 느 끼는 것으로 후세에는 '怔忡'이라 하였다. '驚'과 '悸'는 經過期間 과 輕重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놀라게 되면 반드시 心 悸가 발생하고, 心悸는 쉽게 驚恐하게 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驚悸'로 統稱한다.3)

「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第十六」에 驚悸의 原因으로 心氣不足, 水飲內停, 火邪를 들고 있으며 心臟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鎭心安神을 爲主로 溫通心陽, 蠲飲降逆을 治法으로 삼고 있다.

衄血・吐血・下血・瘀血은 모두 血證에 속하는 것으로 血液이 正常的인 運行을 하지 않고 口와 鼻 또는 前後陰으로 出血이 되 거나 혹은 皮膚로 흘러나오는 것을 血證이라 統稱한다. 4) 衄血은 血液이 코, 잇몸, 혀, 눈, 귀로 나오는 것을 뜻하지만 본편에서는 鼻出血을 가리키며, 下血은 便血을 가리킨다.

본편에는 衄血・吐血・下血의 原因을 肝腎陰虚, 心火熾盛・飲酒 過度・虛陽上逆・中氣虛寒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논술하였다.

'瘀血'은 『素問』과 『靈樞』에 있는 惡血5·衃血67 외에도 蓄血·積血·死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血液이 正常的으로 운 행하지 않고 體內에 막히고 쌓여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病理 的産物이다. 『素問』과 『靈樞』에 惡血·衃血의 명칭은 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고 本篇에 와서야 비로소 瘀血의 脈象과 症狀 에 대한 記載를 볼 수 있다.

본편에 있는 遠血과 近血은 현재에도 쓰이고 있으며, 衄血 吐血 下血은 出血된 部位와 病理機轉이 다르기 때문에 虛實寒熱 의 區分이 있고, 治法에도 淸熱 ·溫補 ·清化濕熱해야 하는 등 區別 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瘀血의 特徵症狀을 중점적으로 논 술하여 後代 瘀血學說의 形成과 發展에 기여하였다.

이에 校勘과 諸家들의 注釋을 考察하여 驚悸 吐血衄血 下血 瘀血에 대한 理解를 돕고자 硏究하였다.

방법 및 자료

본 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 總括 및 結 語의 순서로 연구하였다.

- 1) 『素問・擧痛論』: 驚則心無所倚하고 神無所歸하고 慮無所定 故로 氣亂矣라
- 2)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320
- 3)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547
- 4) 張玉淸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321
- 5) 『靈樞厥病』: 頭痛不可取於兪者 有所擊墮 惡血在於內 若肉傷 痛未已 可 則刺 不可違取也
- 6) 『靈樞·雜病』: 衄而不止 衃血流 取足太陽
- 7) 『素問·五藏生成編』: 赤如衃而者死

- 1. 原文에 條文의 번호와 題目을 달았다.
- 2. 原文은 趙開美가 校刊한 『金匱要略方論』 8)을 底本으로 하였다.
- 3. 懸吐는 蔡의 『金匱要略精解』 9를 準하였다.
- 4. 校勘한 文獻과 略稱은 <表 1>과 같다.
- 5. 본 論文에 引用한 註釋書는 <表 2>와 같고, 註釋의 내용은 懸 吐를 하여 脚註로 하였다.

表 1. 校勘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編著者	略稱	備考
1	金匱要略方論	兪橋	兪本	陳紀藩의 『金匱要略』에
2	金匱要略直解	沈明宗	沈本	서 再引用
3	脈經	王叔和	脈經	
4	桂林古本 傷寒雜病論	張仲景	桂林古本	
5	古今醫統正脈全書	王肯堂	醫統	
6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洞	魏本	
7	金匱要略心典	尤怡	尤本	
8	金匱要略淺註補正	唐宗海	唐本	
9	金匱要略	李克光	李本	

表 2. 選注書目

农 2. 医注目口					
번호	書名	著者	備考		
1	金匱要略直解	程林	陳紀藩의 『金匱要略』에서 再引用		
2	金匱玉函經二注	趙以德-周揚俊			
3	金匱要略心典	尤怡			
4	醫宗金鑑-金匱要略注	吳謙 等			
5	金匱要略淺注	陳念祖			
6	金匱要略廣注	李彣			
7	金匱玉函要略輯義	丹波元簡			
8	金匱要略淺注補正	唐宗海			
9	金匱要略發微	曹家達			
10	金匱要略論注	徐彬			
11	金匱要略方論本義	魏荔洞			
12	金匱要略編注	沈明宗			

연구내용

1條. 驚과 悸

【原文】

寸口脈이 動(1)而弱(2)하면 動卽爲驚이오 弱則爲悸라 【字句解】

(1) 動:動脈. 콩알 같이 동글동글한 것이 제자리에서 움직이 는 脈象 10)

(2) 弱 : 弱脈.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한 脈象.11)

【國譯】

寸口脈이 動하면서 弱하면 動脈은 驚으로 인한 것이고, 弱脈은 悸로 인한 것이다.

【考察】

본 條文은 脈象으로 驚과 悸의 病因과 病理機轉을 記述하였다.

⁸⁾ 張仲景 原著, 王叔和 撰次, 林億 校正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 金匱要略方 論, 終昌德書局, 서울, 1960.

⁹⁾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¹⁰⁾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익산, 2000, p.90

¹¹⁾ 上揭書 p.101.

'驚'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바깥으로부터 刺戟을 받아 놀라는 것으로서 氣가 逆亂되기 때문에 脈도 따라서 일정하지 않게 搖動하게 되므로 動脈이 나타난다. 따라서 驚은 外因으로 인한 것이다.

'悸'는 外界로부터 아무런 刺戟없이 患者 自身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自覺症狀으로서 氣血이 不足하여 心脈이 滋養되지 않아서 脈도 따라서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하고 無力하게 되므로 弱脈이 나타난다. 따라서 悸는 內因으로 인한 것이다.12)13)14)15)

動脈은 有力하고 弱脈은 無力하여 이 두 脈이 同時에 나타 날 수 없으나 驚하면 반드시 悸를 兼하게 되고, 悸가 오래되면 쉽게 驚하게 되므로 이 두 脈이 同時에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사이에 主從의 관계가 있고, 輕重의 區別이 있으므로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16)

2條. 衄血의 預後

【原文】

師曰 夫脈浮1)하고 目睛暈黃(1)하면 衄未止오 暈黃去하야 目睛慧了(2)하면 知衄今止라

【校勘】

1) 夫脈浮:「醫統本」·「桂林古本」·『心典』·『廣注』·『發 微』에는 "尺脈浮"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字句解】

- (1) 目睛暈黃: 환자의 눈동자 주위가 混濁하고 노랗거나, 혹은 환자의 視野가 맑지 않은 것.17)
- (2) 目睛慧了 : 눈동자가 맑거나 視野가 맑게 보이는 것.18) * 慧: 妍黠, 똑똑할 혜.

【國譯】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尺部에 浮脈이 나타나고 눈동자 주위가 混濁하고 노랗거나 視野가 맑지 않으면 衄血이 그치지 않 고, 눈동자 주위가 맑아지거나 시야가 맑아지면 衄血이 그친다.

【考察】

"夫脈浮"가 「醫統本」 등에 "尺脈浮"로 되어 있는데 衄血의 病理機轉에 있어 모든 注釋家들이 火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19)20)21)22)23) 浮脈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는 같으나 눈은 肝이

12) 資生篇: 有所觸而動을 日驚이오 無所觸而動을 日悸라 驚之證은 發於外오 悸之證은 在於內라

19) 徐彬: 肝腎有熱而虚則尺脈浮라

22) 魏荔洞: 必火虚而焰也라

開竅하는 곳이고, 肝과 腎은 乙癸同源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尺部는 腎을 살피는 곳이므로 "尺脈浮"로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思料된다.

尺部는 腎을 살피는 곳으로 脈이 沈하여야 하나 오히려 浮脈이 나타나는 것은 腎陰이 부족하여 虛火가 발생된 것이고24)25), 目睛이 量黃한 것은 目睛은 肝에 屬하고 肝藏血하므로 虛火가 肝에 쌓이기 때문이다.26) 따라서 尺部에 浮脈이 나타나고 目睛量黃한 것은 病因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衄血이 그치지 않고, 만약 目睛量黃이 없어지면 病因이 없어진 것이므로 衄血이 그치게 된다.

3條. 衄血의 區分

【原文】

又曰1) 從春至夏히 衄者2)는 太陽3)(1)이오 從秋至冬히 衄者2)는 陽明4)5)(2)이라

【校勘】

- 1) 又曰: 『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는 "師曰"로 되어 있다.
- 2) 衄者:「桂林古本」에는 "衄血者"로, 『脈經·卷八 平驚悸衄 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는 "發衄"으로 되어 있다.
- 3) 太陽: 「桂林古本」에는 "屬太陽也"로 되어 있다.
- 4) 陽明: 「桂林古本」에는 "屬陽明也"로 되어 있다.
- 5) 又曰 從春至夏衄者 太陽 從秋至冬衄者 陽明: 『發微』에는 又曰從冬至春衄者太陽 從夏至秋衄者陽明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太陽:足太陽膀胱經과 手太陽小腸經이다.
- (2) 陽明: 足陽明胃經과 手陽明大腸經이다.

【國譯】

또 말씀하시기를, 봄부터 여름 사이의 衄血은 太陽經으로 인 하고, 가을로부터 겨울 사이의 衄血은 陽明經으로 인한 것이다.

【考察】

본 條文은 衄血과 季節사이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趙以德 등은 『素問·陰陽離合論』에 太陽은 開가 되고,陽明은 闔이 된다. 봄과 여름의 氣는 發生을 주관하여 開가 되므로 邪氣가 血을 逼迫하여 血이 上升하여 치솟아 衄血이 나오고,가을과 겨울은 收藏을 주관하여 闔이 되므로 邪氣가 內部에 鬱結되어 極에 다다른 뒤에 衄血이 나오므로 봄과 여름의 衄血은太陽經에,가을과 겨울의 衄血은 陽明經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보았다.2728)

太陽과 陽明만을 언급한 것은 血이 陰經을 따라 衝脈과 任脈에 모였다가 나오면 吐血이 되고, 陽經을 따라 督脈에 모였다가 나오면 衄血이 되므로²⁹) 陽經의 病이며, 手太陽經이 콧마루로

¹³⁾ 尤恰: 驚則氣亂 故로 脈動이오 悸屬裏虚 故로 脈弱이라 動即爲驚者는 因 驚而脈動하니 病從外得이오 弱則爲悸者는 因弱而爲悸하니 病自內生이라 其動而且弱者는 則內已虚而外復于之也라

¹⁴⁾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p322, 323

¹⁵⁾ 吳謙 等: 動即爲驚하니 以驚爲外觸而動也오 弱即爲悸하니 以悸爲內生而怯 也라

¹⁶⁾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p322, 323

¹⁷⁾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p.548

¹⁸⁾ 上掲書 p.548

²⁰⁾ 尤怡: 尺脈浮하니 知腎有游火라

²¹⁾ 李芗: 氣升火載라

²³⁾ 吳謙 等: 盖以諸脈이 絡於目而血熱則赤이라

²⁴⁾ 李芝: 尺脈宜沈而反浮하니 氣升火載하야 陰氣不藏也라

²⁵⁾ 尤怡: 尺脈浮는 知腎有游火라

²⁶⁾ 徐彬: 目睛屬肝하니 陽明熱氣乘之則目睛量黃이라

²⁷⁾ 趙以德: 内經에 太陽爲開하고 陽明爲闔이라하며 春夏氣主發生하니 以開者 應之 故로 邪氣逼血從升發衝出이오 秋冬主收藏하니 以闔者應之 故로 邪鬱 内極而後發出이라

²⁸⁾ 尤怡: 春夏엔 陽氣浮則屬太陽하고 秋冬엔 陽氣伏則屬陽明이라

²⁹⁾ 尤恰: 血이 従陰經으로 幷衝任而出者는 則爲吐Ω 從陽經으로 幷督脈而出者는 則爲衄이라

上行하여 코에 이르고, 足太陽經이 巓頂으로부터 코와 통하는 腦로 들어가고, 手陽明經이 鼻孔을 끼고 있고, 足陽明經이 코에서 起始하여 콧대로 들어가는30) 반면에 少陽經은 코로 들어가지 않기31)32) 때문에 太陽과 陽明만을 언급하였다.

또한 魏荔洞은 봄과 여름에는 陽氣가 상승하니 이 시기의 衄血은 外感風寒이 表膚에 침범하여 邪熱이 胸胃에 생기고 熱이 안에서 熾盛하면 血이 이를 따라 위로 치밀어 衄血이 되니 太陽經의 衄血은 外感이 原因이다. 가을과 겨울에는 陽氣가 下降하니 이시기의 衄血은 대개 內傷이 原因이 되어 藏府의 津液이 消耗되어 邪熱이 三焦에서 발생하여 熱이 또한 熾盛하여 血도 따라서 위로 치솟아 衄血이 되므로 陽明經의 衄血은 內傷이 原因이 된다33)고하여 外感과 內傷으로 太陽과 陽明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본 條文이 『發微』에는 "又曰從冬至春衄者太陽 從夏至秋 衄者陽明"으로 되어 있는데 曹穎甫는 太陽表實無汗之證은 血熱이 안에서 막혀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위로 올라가 腦에 들어가서 衄血이 되고, 陽明裏熱證에 大便을 보지 못하면 또한 熱이위로 올라가 腦에 들어가 衄血이 되니 太陽 陽明의 衄血은 病證으로 인한 것이지 時期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傳寫의 誤謬이다. 太陽傷寒은 겨울에 많고 太陽中風은 봄에 많으므로 "從冬至春衄者 太陽"으로 해야 옳고, 여름부터 가을까지의 天氣는 炎熱하고 腸胃가 쉽게 燥하게 되어 陽明內實이 많게 되므로 "從夏至秋衄者 陽明"으로 해야 옳다34)고 하였다.

衄血과 관련된 『傷寒論』47條의 "太陽病 脈浮緊 無汗發熱身疼痛 八九日不解 表證仍在 此當發其汗 服藥已微除 其人發煩目 瞑 劇者必衄 衄乃解 所以然者 陽氣重故也 麻黃湯主之"35)와 211條의 "陽明病 口燥 但欲漱水 不欲嚥자 此必衄"36)에 의하면 表熱을 發汗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熱이 鬱結되어 衄血이 되고, 裏熱을 瀉下하지 않아도 또한 衄血이 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衄血은 時期와 관계없이 熱이 原因이 되어 발생되는 것이므로時期에 拘碍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衄血의 原因과 病理機轉은 腎陰虛로 虛火가 발생하여 肝藏血에 영향을 주어 血이 코와 連絡되는 太陽經과 陽明經을 따라나오는 것으로 要約된다.

4條. 衄血을 誤治한 變症

【原文】

30) 李芝: 衄血出於鼻하니 手太陽經은 上顧抵鼻하고 足太陽經은 從顧入絡腦하고 手陽明經은 挾鼻孔하고 足陽明經은 起鼻交類中이라

- 31) 尤恰: 少陽之脈은 不入鼻類 故로 不主衄也라
- 32) 陳修園・唐宗海: 少陽之脈은 不入鼻齃 故로 不主衄也라
- 33) 魏荔洞: 從春至夏엔 陽氣方升하니 此時得酬은 多因外感風寒客於表膚하야 而邪熱生於胸胃하야 熱旣內盛하고 血遂上逆而致衄 故로 日太陽之衄은 以 外感之因也라 從秋至冬엔 陽氣方降하니 此時得衄은 多因內傷하야 津液耗 於藏府하야 而邪熱生於三焦하고 熱亦內盛하고 血亦上逆而致衄 故로 日陽 明之衄은 以內傷之因也라
- 34) 曹穎甫: 太陽表實無汗之證에 血熱内抗하야 外不得泄則上衝於腦而爲衄하고 陽明裏熱에 不得大便則亦上衝於腦而爲衄하니 此太陽陽明之衄은 因於證하고 不因於時也라 … 此는 傅寫之誤也라 太陽傷寒은 見於冬令爲多하고 太陽中風은 見於春令爲多하나 則原文當云從冬至春衄者太陽하고 自夏徂秋엔 天氣炎熱하고 腸胃易於化燥하야 陽明內實爲多하나 則原文當云從夏至秋衄者陽明이라
- 35) 蔡仁植: 傷寒論譯詮, 高文社, 서울, 1971, p.51
- 36) 上掲書, p.153

衄家(1)는 不可汗1)하니 汗出하면 必額上陷(2)하고 脈緊急2) 하고 直視(3)不能晌(4)하고 不得眠이라

【校勘】

- 1) 衄家不可汗:『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는 "衄家不可發其汗"으로 되어 있다.
- 2) 汗出必額上陷 脈緊急: 『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는 "汗出必額上促急而緊"으로, 『發微』에는 "汗出必顴上陷 脈緊急"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衄家 : 코피를 자주 흘리는 사람.
- (2) 額上陷 : 이마 위 양쪽의 動脈이 搏動하는 部位가 血脫로 인하여 陷沒되는 것.
 - (3) 直視: 目直. 눈알이 돌아가지 않아 곧추 보는 것.
 - (4) 眴 : 目動, 눈움직일 현.

【國譯】

【考察】

『靈樞·營衛生會』에 "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이라 하였으니 血과 汗은 모두 陰에 속하여 根源이 같다. 衄家는 亡血이 過多하니 만약 發汗시키면 더욱 亡陰이 重하게 되므로 發汗은 衄家의 올바른 治法이 될 수 없다. 만약 發汗시킨다면 '脈者血之府'이므로 이마 양쪽의 動脈이 脫血로 인하여 陷沒되고, 血이 不足하여 脈을 營養하지 못하므로 寸口脈이 柔和함을 잃어서 緊急하게 된다.37 눈은 血을 받아야 볼 수 있으나 오랫동안 코피를흘린대 다시 發汗시키면 陰脫하므로 直視하여 눈동자를 움직일수 없다. 心血이 虧損되어 陽이 搖動하면 火가 逆上하여 잠을 잘수 없다.88)

"額上陷 脈緊急"에 대하여 尤怡는 "이마 양쪽의 動脈이 脫血로 인하여 陷沒되고, 血이 不足하여 脈을 營養하지 못하므로 寸口脈이 柔和함을 잃어서 緊急하게 된다"39)고 하여 額部의 脈과 寸口脈으로 구분하였으나, 吳謙 등은 "額角의 陷沒되어 있는 部位의 脈이 熱에 熏灼되어 緊急하게 된다"40)41)고 하여 寸口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5條. 衄血下血 吐血의 脈證과 鑑別

【原文】

病人이 面無色1)하고 無寒熱에 脈沈(1)弦(2)者2)는 衄3)이오 浮(4)弱4)하며 手按(4)之絶者5)는 下血이오 煩欬者6)는 必吐血이라

【校勘】

- 37) 尤恰: 血與汗은 皆陰也니 衄家復汗하면 則陰重傷矣라 脈者血之府니 額上 陷者는 額上兩旁之動脈이 因血脫於上而陷下不起也라 脈緊急者는 寸口之脈이 血不榮而失其柔하니 如木無液而枝乃動也라
- 38) 趙以徳: 目得血而能視い 久衄復汗하면 陰脫而直視不能轉動矣라 心血虧而 虚陽搖搖하면 則火逆不得眠矣라
- 39) 尤恰: 額上陷者는 額上兩旁之動脈이 因血脫於上而陷下不起也라 脈緊急者 는 寸口之脈이 血不榮而失其柔라
- 40) 吳謙 等: 額角上陷中之脈이 爲熱所灼하야 緊且急也라
- 41) 陳修園: 汗出하면 必額上陷中之脈이 爲熱所爍而緊急이라

- 1) 無面色:「醫統本」・『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 證諸十三』・『金鑑』에는 "面無血色"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른다.
- 2) 脈沈弦者: 「醫統本」에는 "脈沈眩者"로 되어 있다.
- 3) 衄 : 「桂林古本」에는 "必衄血"로 되어 있다.
- 4) 浮弱: 「桂林古本」에는 "脈浮而弱"으로, 『心典』, 『金鑑』, 『廣注』, 『發微』에는 "脈浮弱"으로 되어 있다.
- 5) 手按之絶者: 「桂林古本」에는 "按之則絶者"로 되어 있다.
- 6) 煩欬者:「桂林古本」에는 "煩而咳者"로, 『心典』에는 "煩 渴者"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沈:沈脈. 손가락을 가볍게 누르면 脈이 感應되지 않고, 무겁게 눌러야 잡히는 脈象.42)
- (2) 弦: 弦脈. 脈象이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여 絃樂器의 줄을 누를 것 같은 脈象.⁴³)
- (3) 浮: 浮脈. 가볍게 누르면 脈象이 잡히고 무겁게 누르면 힘이 조금 減少되나 속은 비지 않으며,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에 가득 차며 힘이 있는 脈象.44)
 - (4) 按: 抑也, 누를 안.

【國譯】

患者가 얼굴에 血色이 없고 惡寒發熱의 症狀이 없는데 寸口 脈이 沈弦한 사람은 衄血이 되고, 寸口脈이 浮弱하고 손으로 눌 렀을 때 끊어지는 사람은 下血이 되고, 煩燥와 咳嗽를 하는 사람 은 반드시 吐血한다.

【考察】

"面無色"은 血脫의 現象으로 顏色이 蒼白하고 潤氣가 없는 것이고45/46), "無寒熱"은 病이 惡寒發熱이 없다는 것으로 外感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面無色" 또한 內傷으로 起因한 것으로서 본 條文은 內傷의 衄血 下血 吐血에 대하여 記述하였다.

外感의 衄血은 寸口에 반드시 浮大脈이 나타나지만 浮大脈이 아닌 沈弦脈이 나타나는 것은 內傷의 衄血을 의미한다47). 黃樹曾은 沈脈은 腎, 弦脈은 肝의 脈이니 沈弦脈이 나타나는 것은 肝腎의 火가 위로 치밀어 血을 핍박하여 衄血이 된다고48) 하였고, 曹穎甫는 沈弦脈은 水가 偏勝하고 血이 부족하여 陰寒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 陽氣가 위로 亢盛하여 陽氣가 腦로 치밀어 오르면 顱骨의 이음새가 열려서 血이 腦로부터 나와 衄血이 된다49고 하였다.

浮弱脈은 弱脈은 血虛하고 浮脈은 陰이 陽을 감싸주지 못한 것이니 만약 손으로 눌러서 손가락 끝에 感應하지 않으면 陽氣 가 위로 떠올라 氣가 下脫하게 되니 男子에 있어서는 便血이 되

42)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9

- 43) 上揭書, p.99
- 44) 上揭書, p.98
- 45) 程林: 病人面無血色은 血脫之象也라
- 46) 尤怡: 血脫者는 色白不澤也라
- 47) 尤恰: 衄因外感者는 其脈必浮大하니 陽氣重也오 衄因內傷者는 其脈當沈弦 하니 陰氣勵也라
- 48) 黄樹曾: 脈沈爲腎 弦爲肝하니 脈沈弦而不華色하고 身無寒熱者는 顯屬肝腎 之火上逆하아: 温陽血由清道而出爲鮮이라
- 49) 曹穎甫: 沈弦脈은 水勝血負하ら 陰寒内據而陽上亢也니 陽氣衝腦則顱骨縫 開하ら 血谷腦出而爲衄이라

고, 婦人에 있어서는 崩漏가 된다.50)

煩燥와 咳嗽는 모두 肺의 病이니 肺에 火氣가 潛伏하여 血 을 逼迫하여 血이 妄行하므로 吐血이 된다.51)

6條. 重症 吐血의 預後

【原文】

夫吐血에 欬逆上氣(1)하고 其脈數(2)而有熱1)하야 不得臥者 는 死라

【校勘】

- 1) 其脈數而有熱: 『發微』에는 "其脈數而間有熱"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咳逆上氣: 咳嗽上氣. 기침과 천식이 함께 나타나는 病證.(2) 數: 數脈.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6回 이상 搏動하는 脈.52)

【國譯】

吐血을 하는 患者가 기침과 喘息을 하고 寸口脈이 數하면서 發熱이 있어 잠을 자지 못하면 죽는다.

【考察】

吐血을 하고 기침과 喘息을 하는 것은 앞 條文의 煩咳吐血의 證이다.53) 吐血은 먼저 陽虛하게 된 뒤에 陰虛하게 된 것이 니54) 吐血로 인하여 眞陰이 虧損되어 回復되기 어렵다.55) 陰虛하여 火가 날로 盛하면 陰을 灼熱하는 火는 있으나 陰을 生하는 陽이 없게 된다.56) 陰血을 안에서 편안하게 길러주는 것은 腎水가주관하는 것인데 水가 虛하여 安靜되지 않으면 火의 逼迫을 받아 내몰려서 出血이 된다. 出血이 되면 陽이 더욱 熾盛하여 上升하기만 하고 下降하지 않아서 肺金을 炎灼하니 肺金이 그 害를받아 이로 인하여 咳逆上氣하게 된다.57) 數脈과 身熱은 陽만 홀로 偏勝된 것이며58) 偏盛한 熱이 心神을 搖動시키므로 虛煩으로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陰이 끊어졌으니 어찌 陽만 홀로 있을 수 없으므로 죽는다.59)

7條. 酒客의 咳血과 吐血의 病理機轉

【原文】

- (1) 酒客: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
- (2) 吐血 : 喀血과 吐血을 가리킨다.60)

【國譯】

- 54) 徐彬: 凡吐血은 先由陽虚하고 後乃陰虚라
- 55) 唐宗海: 此는 言血後에 眞陰虧而難復也라
- 56) 徐彬: 至陰虚而火日以盛하면 有灼陰之火하고 無生陰之陽이라
- 57) 趙以德: 夫陰血之安陽於內者는 腎水主之니 水虚不能安靜하면 被火逼逐而 血溢出矣라 血出則陽光益熾하야 有升無降하야 炎鑠肺金하니 金受其害하 야 因咳逆而上氣라
- 58) 尤怡: 脈敷身熱や 陽獨勝也라
- 59) 趙以德: 陰絶하니 陽豊獨生乎아 故로 曰死也라
- 60) 陳紀藩: 吐血은 此指喀血與吐血이라

⁵⁰⁾ 曹穎甫: 脈浮而弱에 弱爲血虚하고 浮即爲陰不抱陽하니 若手按之而不能應 指하면 則陽上浮而氣下脫矣라 在男子爲便血이오 在婦人爲崩漏라

⁵¹⁾ 李彣: 煩與咳俱肺病이니 肺中伏火하야 迫血妄行 故로 吐血이라

⁵²⁾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9

⁵³⁾ 曹穎甫: 吐血咳逆上氣는 此節上煩咳吐血之證이라

평소 술을 즐기는 사람이 咳嗽를 하면 반드시 吐血을 하니 이는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생긴 것이다.

【考察】

술의 性質은 太熱하고 들어오면 흩어지지 않으니61) 熱毒이 胃에 쌓여 肺를 熏蒸하면 咳嗽를 하고 오래되면 肺絡이 熱에 損傷되어 血이 咳嗽를 따라 나와 吐血하게 된다.62) 이는 飲酒過度로 인한 것이다.

8條. 虛寒亡血의 脈象

【原文】

寸口脈이 弦而大(1)한대 弦則為減하고 大則為芤(2)면 減則為寒の요 芤則為虚니 虚寒相擊1)(3)을 此名日革(4)이라 婦人則半産(5)漏下(6)하고 男子則亡血2)(7)이라

【校勘】

- 1) 虚寒相撃: 『金匱要略·血痺虚勞病脈證幷治第六』・『脈經· 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心典』・『發微』 에는 "虚寒相搏"으로 되어 있다.
- 2) 男子則亡血: 『金匱要略・血痺虚勞病脈證幷治第六』・『廣注』・『發微』에는 "男子則亡血失精"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大: 大脈. 가볍게 浮取하면 손가락 가득히 느껴지나 눌러서 沈取하면 힘이 없는 脈象.63)
- (2) 芤: 浮大하면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 파 잎을 누르는 것과 같은 脈象.⁶⁴⁾
 - (3) 擊 : 撲也, 두드릴 박.
- (4) 革: 革脈. 浮하면서 손가락을 치고, 가운데는 비고 밖은 단단하여 마치 북 가죽을 누르는 것 같은 脈象.65)
- (5) 半産: 小産, 半生, 失胎라고도 함. 姙娠 3個月 이후에 저절로 中絶되는 것으로 自然流産, 自然早産을 말한다.
- (6) 漏下:過勞로 氣血을 損傷하여 衝 任脈이 虛損해져 月經의 時期가 일정하지 않고, 經血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 는 것을 가리킨다.
 - (7) 亡血: 吐血, 衄血, 便血, 外傷 등으로 인하여 陰血이 虛해진 것. 【國譯】

寸口脈이 弦하면서 大하되 弦은 減이 되고 大는 芤가 되면 減한 것은 寒이 되며 芤한 것은 虛가 된다. 虛와 寒이 서로 뒤섞 이면 革脈이라고 한다. 女子의 경우는 流産과 漏下가 발생하고, 男子의 경우는 亡血과 失精이 된다.

【考察】

본 條文은 『金匱要略·血痺虛勞病脈證幷治第六』의 12條와 같다. 革脈의 脈象을 原文에 "弦而大"라고 표현하였으므로 革脈 은 弦大한 脈象과 유사하다. 後代에는 浮하면서 손가락을 치고, 가운데는 비고 밖은 단단하여 마치 북 가죽을 누르는 것 같은 脈

- 61) 趙以德: 酒性太熱하고 客焉不散이라
- 62) 尤怡: 酒之熱毒이 積於胃而蒸於肺則咳하고 久之肺絡熱傷하면 其血必隨咳 而吐出이라
- 63) 李梴: 大浮滿指沈無力
- 64) 上揭書, p.98
- 65)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100

象이라고60 表現한다. 따라서 弦大한 脈象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弦脈은 浮沈에 상관없이 곧으면서 長하지만, 革脈은 浮取하면 弦脈같지만, 沈取하면 無力하여 弦脈과는 차이가 있다. 大脈은 浮取하면 손가락 가득히 힘이 느껴지나 沈取하면 無力해지는 특징이 있다. 革脈도 浮取하면 大脈과 비슷하지만 沈取하면 텅 빈 듯한 芤脈과 유사하여 大脈과 차이가 있다.

弦則爲減"은 陽氣가 衰함을 나타내고, "大則爲芤"는 陰氣가 衰함을 나타낸다. 陽氣가 衰하니 內部가 寒해지고, 陰氣가 衰하 니 內部가 虛해진다.67)

革脈이 생기는 기전은 陰氣가 크게 傷한 이후에 陽氣가 浮越한 것이다. 따라서 女子는 流産・漏下의 경우에 나타나고, 男子는 亡血・失精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現代 醫學的으로는 高血壓에 나타나는 脈으로도 볼 수 있다.68)

9條. 亡血을 發汗하였을 때의 變症

【原文】

亡血1)에 不可發其表2)하니 汗出則寒慄(1)而振이라

【校勘】

- 1) 亡血: 『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 는 "亡血家"로 되어 있다.
- 2) 不可發其表:『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는 "不可攻其表"로 되어 있다.

【字句解】

(1) 寒慄: 戰慄, 振寒, 寒戰. 추운 감을 느끼면서 몸이 떨리는 症. * 慄: 竦縮, 소스라칠 율.

【國譯】

亡血이 되었을 때에는 發汗解表할 수 없으니 땀이 나면 추위를 느끼면서 몸을 떨게 된다.

【考察】

본 條文은 『傷寒論』 90條의 "亡血家 不可發汗 發汗則寒慄而振"과 같은 것으로, 亡血된 경우에는 비록 表邪가 있더라도 發汗해서는 안 된다6%. 亡血은 陰氣가 消亡된 것이니 다시 發汗시키면 陽氣 또한 損傷되니 陽氣가 損傷되면 外部가 堅固하지 못하므로 戰慄하고, 陰氣가 消亡되면 內部가 지키지 못하므로 덜덜떨게 된다.70

10條. 瘀血의 脈證

【原文】

病人이 胸滿하고 唇痿(1)舌靑하고 口燥하야 但欲漱水不欲嚥 1)(2)하고 無寒熱하고 脈微大來遲(3)(4)하고 腹不滿이어늘 其人言 我滿2)이라하면 爲有瘀血3)(5)이라

⁶⁶⁾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99

⁶⁷⁾ 曹家達: 脈弦은 爲陽氣衰오 脈大而芤는 爲陰氣奪이니 陽衰則中寒하고 陰 奪則裏虚라

⁶⁸⁾ 千相默: 金匱要略血痺虚勞病脈證幷治第六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 院, 益山, 2005, pp.25,26

⁶⁹⁾ 徐彬: 此는 言亡血家는 雖有表邪라도 不可發汗이라

⁷⁰⁾ 尤恰: 亡血者는 亡其陰也오 更發其表하면 則陽亦傷矣라 陽傷者는 外不固故로 寒慄하고 陰亡者는 內不守 故로 振振動搖라

【校勘】

- 1) 但欲嗽水不欲嚥:『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는 "其人但欲漸水不欲嚥"으로 되어 있다.
- 2) 其人言我滿: 「桂林古本」에는 "其言我滿"으로 되어 있다.
- 3) 爲有瘀血: 『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에는 "爲有瘀血 當出汗不出 內結亦爲瘀血"로, 「桂林古本」에는 "此爲有瘀血"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唇痿 : 입술의 색이 生氣가 없고 潤澤하지 않음.
- (2) 漱水不欲嚥 : 물을 입에 머금어 마시지는 않고 입을 적시는 것. * 漱: 盪口, 양치질할 수, 嚥: 呑也, 삼킬 탄.
- (3) 脈微大來遲: 脈象이 비록 大하지만 脈勢가 부족하여 往來 가 껄끄럽고 느리고 緩慢한 것.⁷¹⁾
 - (4) 遅: 遅脈. 醫師의 1呼吸에 患者의 脈이 3回 博動하는脈象.72)
- (5) 瘀血: 蓄血. 血液의 운행이 막혀서 經脈에 남게 되거나, 脈 바깥으로 넘쳐나가 藏府나 組織 중에 뭉치는 것.

【國譯】

患者가 가슴속이 그득한 듯하여 불편하며 唇痿舌靑하고 입이 마르나 물을 입에 머금어 적시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고 惡寒 發熱이 없고 脈이 微大하면서 遲하고 腹部脹滿의 症候가 없으나 스스로 느끼기를 腹部가 脹滿하다고 말하면 瘀血이 있는 것이다.

【考察】

'胸滿'은 血이 運行되지 않아 氣가 순조롭게 疏通되지 않기때문이다.73) 心은 血을, 肺는 氣를 主宰하고 모두 膈膜의 위쪽에위치하고 있으니 바로 가슴부위이다. 瘀血이 있으면 心肺가 서로通하지 않아서 氣血이 運行되지 않으므로 胸滿하게 된다.74)

'唇痿舌靑'은 血이 榮養하지 못하기 때문이다.75) 肝藏血하고 經脈이 입술 안쪽을 돌고, 脾裹血하고 그 榮華로움은 입술의 주위에 나타나고, 胃는 多氣多血하고 經脈이 입을 끼고 입술을 돌으니 血이 운행되지 않으면 肝・脾・胃 三經이 시들어 血이 潤養하지 못하므로 唇痿하게 된다.76) 또한 心은 血을 주재하고 火에 屬하며 舌은 心의 竅가 되므로 그 色이 紅色인데 血이 運行되지 않으면 火氣가 衰退하여 寒冷하여 心이 血을 生하지 못하므로 舌靑하게 된다.77)

血이 운행되지 않으면 津液이 輸布되지 않으므로 '口燥'하지 만 內部에 實熱이 없으므로 '但欲漱水不欲嚥'하게 된다.78)

'無寒熱'은 外感表邪가 없으므로 惡寒發熱하지 않는다. '脈微大來遲'한 것은 血이 經隧에 쌓여서 脈이 껄끄럽고 圓

滑하지 않기 때문이다.79)

'腹不滿 其人言我滿'은 宿食이 없으나80) 患者 스스로가 脹滿 하다고 말하면 瘀血이 있기 때문이다. 肝藏血하고 그 經脈이 小 腹에 이르러 脇肋에 分布하니 瘀血이 小腹과 脇肋 두 곳에 많으 면 宿食으로 인한 臍腹部의 脹滿이 없더라도 血瘀氣滯로 인하여 小腹部와 脇肋部가 脹滿한 것을 腹滿으로 誤認하는 것이다.81)

瘀血의 증상은 원문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얼굴이 검으며 피부가 靑紫色이고 거칠어지며 심한 통증이 일정한부위에 고정되어 있고 누르면 더욱 아파지고 大便이 검어지며심하면 健忘症과 미쳐 날뛰는 것82)과 日輕夜重83) 등의 변화가있으나 瘀血의 部位와 時間 및 程度를 막론하고 모두 舌에 反映되므로 後代의 醫家들은 '舌靑'의 症狀에 근거하여 瘀血을 診斷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84)

11條. 瘀血鬱熱의 證治

【原文】

病者가 如熱狀1)(1)하야 煩滿하고 口乾燥而渴이나 其脈反無熱하면 此爲陰伏2)이라 是瘀血也니 當下之3)라

【校勘】

- 1) 病者如熱狀: 「桂林古本」에는 "病人如有熱狀"으로, 『心典』・『發微』에는 "病者如有熱狀"으로 되어 있다.
- 2) 此爲陰伏: 底本에는 "此爲陰狀"으로 되어 있으나 『醫統本』,『脈經,卷八 平驚悸衄吐下血胸滿瘀血脈證諸十三』,『心典』,『金鑑』,『廣注』,『發微』를 따라 고쳤다.
- 3) 當下之:「桂林古本」에는 "當下之 宜下瘀血湯"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如熱狀: 患者가 發熱하지 않는데도 熱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自覺症狀.85)

【國譯】

患者가 發熱하지 않으나 熱이 있는 것으로 느껴서 心煩胸滿하며 입이 마르고 渴症이 있으나 寸口脈이 도리어 無熱한 脈이나타나면 이는 陰伏이다. 이는 瘀血이니 瘀血을 攻下하여야 한다.

【考察】

'如熱狀'은 '煩滿 口乾燥而渴'을 말하고, '脈無熱'은 寸口에 數大脈86) 또는 數疾脈87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心煩胸滿 口乾舌燥 '渴症의 症狀은 모두 熱證이므로 數 大 '疾脈과 같은 陽脈이 나타나야 하나 數 '大 '疾脈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沈 '伏脈과 같은 陰脈88)이 나타나는 것은 實熱이 아니고 瘀血이 鬱滯되어 熱로 化하기 때문이며 이것을 '陰伏'이라 하였다.

⁷¹⁾ 張玉淸: 脈象雖大나 但脈勢不足하야 往來澁滯遲緩이라

⁷²⁾ 成百萬: 脈經의 脈形狀指下秘訣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0, p.101

⁷³⁾ 尤怡: 胸滿者는 血瘀而氣爲之不利也라

⁷⁴⁾ 李芝: 心主血하며 肺主氣하고 俱位膈上하야 正在胸中이라 血瘀則心肺交困 하야 氣血不行 故로 胸滿也라

⁷⁵⁾ 尤怡: 唇痿舌青는 血不榮也라

⁷⁶⁾ 李芝: 肝藏血하고 其經이 環唇內오 脾賽血하고 其華在唇四白이오 胃多氣 多血하고 其經挾口環唇하니 血瘀則肝脾胃三經枯澁하야 血不華潤 故로 唇 痿也라

⁷⁷⁾ 李芝: 心主血하고 屬火하며 舌爲心骸 故로 其色紅이나 血療則火氣衰冷하 야 心血不生 故로 舌青也라

⁷⁸⁾ 李彣: 血瘀則津液不布 故로 口燥오 內無實熱 故로 漱水不欲咽이라

⁷⁹⁾ 尤怡: 脈微大來遲는 血積經隧하면 則脈澁不利也라

⁸⁰⁾ 曹穎甫: 腹不滿은 無宿食也라

⁸¹⁾ 李芝: 肝藏血하고 其經이 抵小腹하고 布脇肋하니 血瘀多在小腹脇肋二處하 閏 與臍腹無干 故로 腹不滿 其人言我滿하니 以血瘀氣滯足대 疑爲腹滿耳라

⁸²⁾ 김동일 등: 재편집 東醫學事典, 도서출판 까치, 1990, p.688

⁸³⁾ 許俊: 凡病日輕夜重은 便是瘀血이라

⁸⁴⁾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pp521, 522

⁸⁵⁾ 張玉清 編著 胡庚辰 評注: 金匱要略,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2000, p332

⁸⁶⁾ 尤怡: 如有熱狀은 即下所謂煩滿口乾燥而渴也오 脈無熱은 不數大也라

⁸⁷⁾ 李定: 其脈不數疾이라

⁸⁸⁾ 吳謙 等: 如熱狀은 即所謂心煩胸滿口乾燥渴之熱證也니 其人이 當得數大之 陽脈이나 今反見沈伏之陰脈은 是爲熱伏於陰むむ 乃瘀血也라

煩滿은 瘀血로 인하여 經氣가 잘 운행되지 못하는 것이며, 口乾舌燥·渴症은 瘀血로 인하여 津液이 輸布되지 못한 것이다.89)

'陰伏'에 대하여 尤怡는 陰邪가 結滯되어 內部에 潛伏하는 것으로90), 魏荔洞은 盛한 熱邪가 陰分이나 血分으로 潛伏하거나 下焦血室로 들어가 潛伏하는 것으로91), 吳謙 등은 熱邪가 陰脈에 潛伏되는 것으로92), 曹穎甫는 陰血이 안으로 潛伏하면 脈이 興起 되지 않는 것으로93), 李彣과 黃樹曾은 血은 陰에 屬하니 血이 瘀 滯되면 內部에서 맺혀 潛伏되는 것으로94)95) 인식하여 조금의 차 이가 있다.

본 조문에는 "當下之"라 하여 瘀血의 治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血實者 宜決之"와 『素問·至 眞要大論』의 "結者散之"에 근거한 것이다.

「桂林古本」에는 제시된 下瘀血湯은 「婦人産後病脈證治第二十一」에 産後에 瘀血이 胞宮에 鬱結되어 發生되는 腹痛의 主治方이다. 이러한 腹痛은 단순히 行氣和血하는 枳實芍藥散으로는 藥力이 모자라고 攻堅破積하는 大黃과 같은 藥劑가 아니면 胞宮에 있는 乾血을 除去할 수 없으므로%) 下瘀血湯을 主治方으로 삼았다.

大黃, 桃仁, 蟅蟲은 下血시키는 힘이 猛烈한97 藥材로서 大黃은 苦味로써 實한 것을 瀉하고, 桃仁은 苦味로써 瘀血은 運行시키고, 蟅蟲은 鹹味로써 血分으로 들어간다.98) 그러나 下瘀血湯은 血實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血虛한 경우에는 服用을 忌하여야 한다.99)

下瘀血湯은 大黃三兩 桃仁二十枚 蟅蟲二十枚去足으로 구성 되어 있고, 세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煉蜜로 四丸을 만들어 一丸을 술 一升과 물 一升에 八合이 되도록 달여서 頓服하면 돼 지 肝과 같은 血이 나오면서 낫는다.100)

12條. 火邪의 治療

【原文】

火邪(1)者는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라 桂枝救逆湯方

桂枝三兩去皮1) 甘草二兩炙2)(2) 生薑三兩 牡蠣五兩熬3)(3) 龍骨四兩 大棗十二枚 蜀漆三兩洗(4)去皮4)

右爲末하야 以水一斗二升5)으로 先煮(5)蜀漆하야 減二升하고 內(6)諸藥하야 煮取三升하야 去滓(7)하고 溫服一升이라

- 89) 李芝: 煩滿者는 血瘀經氣不舒오 燥渴者는 血瘀津液不布也라
- 90) 尤怡: 陰伏者는 陰邪結而伏於內也라
- 91) 魏荔洞: 陰伏者는 熱盛伏於陰分血分하고 且沈於下焦血室하야 至深而奥 故 로 謂之伏也라
- 92) 吳謙 等: 是爲熱伏於陰하야 乃瘀血也라
- 93) 曹穎甫: 陰血內伏則脈不奮興이라
- 94) 李彣: 血屬陰하니 瘀則結伏於內 故로 爲陰伏이라
- 95) 黄樹曾: 血屬陰하고 血瘀於內 故로 曰陰伏이라
- 96) 趙以德: 血之乾燥凝者는 非潤燥蕩滌不能去也니 芍藥枳實不能治오 須用大 黃蕩涿之라
- 97) 尤怡: 大黄 桃仁 蟅蟲은 下血之力頗猛이라
- 98) 李彣: 大黃은 苦以瀉實하고 桃仁은 苦以行瘀하고 蟅蟲은 鹹以走血이라
- 99) 李芝: 要惟血實者宜之오 血虛者忌服이라
- 100) 「婦人産後病脈證治第二十一」: 下瘀血湯方 大黄二兩 桃仁二十枚 蟅蟲 二十枚 熬 去足 右三味를 末之하야 煉蜜和爲四丸하고 以酒一升으로 煎一 丸하야 取八合하야 頓服之하면 新血下如豚肝이라

【校勘】

- 1) 桂枝三兩去皮: 『金鑑』에는 "桂枝三兩"으로, 『廣注』에는 "桂枝二兩去皮"로 되어 있다.
- 2) 甘草二兩炙 : 「醫統本」에는 "甘草二兩"으로 되어 있다.
- 3) 牡蠣五兩熬 : 『發微』에는 "牡蠣五兩"으로 되어 있다.
- 4) 蜀漆三兩洗去皮:「醫統本」、『金鑑』、『廣注』、『發微』 에는 "蜀漆三兩洗去腥"으로, 『心典』에는 "蜀漆三兩 燒 去腥" 으로 되어 있다.
- 5) 以水一斗二升: 『廣注』에는 "以水一斗三升"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火邪: 太陽傷寒을 汗蒸・火鍼・溫鍼 등의 火熏療法으로 잘 못 治療하여 생긴 壊證.
- (2) 炙:合炒. 약재를 액체 보조 재료에 재웠다가 볶거나 굽는 것을 말한다
 - (3) 熬:乾煎, 볶을 오
- (4) 洗:물로 藥物의 표면에 붙어 있는 흙이나 그 외의 不純物을 씻어 내는 것으로, 약물의 특성에 따라 유효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짧은 시간 안에 씻어서 햇볕이나 60℃ 안곽의 건조실에서 빨리 말린다.(* 洗: 滌也, 씻을 세)
 - (5) 煮: 烹也, 다릴 자
 - (6) 內 ; 入也, 들일 납
 - (7) 涬: 澱也, 찌꺼기 재

【國譯

火邪는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으로 主治**한**다. 桂枝救逆湯方

桂枝三兩去皮 甘草二兩炙 生薑三兩 牡蠣五兩熬 龍骨四兩 大 審十二枚 蜀漆三兩洗去皮

以上의 藥材를 가루를 내어 물 一斗二升으로 먼저 蜀漆을 넣고 끓여서 二升을 줄이고 나머지 藥材를 모두 넣고 三升이 되도록 끓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一升씩 溫服한다.

【考察】

『傷寒論·太陽病篇』 117條에 "傷寒病에 脈이 浮한 것을 醫師가 火治로 이것을 迫劫하여 亡陽이 되면 반드시 驚狂하여 앉으나 누우나 不安한 者는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으로 主治한다"101)고 하였고, 119條에 "太陽病을 火로 熏하였으되 땀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躁擾하여 到經하여도 풀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下血하니 이름을 火邪라 한다."102)고 하였으니 火邪는 太陽病 表證을 汗蒸·火鍼·溫鍼 등의 火熏療法을 發汗시키려고 하였으나 땀이 나지 않고 오히려 亡陽이 되어 便血・起臥不安・驚狂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壞證이다.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은 桂枝湯으로 남아있는 表邪를 치료하기 위함이고, 芍藥을 去하는 것은 芍藥의 性味가 酸寒하기 때문에 亡陽에 適合하지 않기 때문이며, 蜀漆은 性味가 辛溫하여 103)104) 亡陽에 適合하며, 龍骨과 牡蠣는 逆上된 血을

¹⁰¹⁾ 傷寒論: 傷寒脈浮 醫以火迫劫之 亡陽 必驚狂 起臥不安者 桂枝去芍藥加蜀 漆牡蠣龍骨救逆湯主之

¹⁰²⁾ 傷寒論: 太陽病 以火熏之 不得汗 其人必躁 到經不解 必清血 名爲火邪

¹⁰³⁾ 李奘: 與桂枝湯하야 解未盡表邪兔 去芍藥하야 以其益陽하고 非亡陽所宜 也라

制御하여 火邪가 血로 가는 것을 막고 猛厲한 邪氣를 몰아내기 때문에105) 사용하였다.

13條. 水飮으로 인한 悸의 治療

【原文】

心下悸(1)者1)는 半夏麻黄丸主之라

半夏麻黃丸方

半夏 麻黄等分

右二味를 末之하야 煉蜜(2)和(3)丸호대 小豆大2)(4)하고 飲服 三丸호대 日三服이라

【校勘】

- 1) 心下悸者: 「醫統本」에는 "心下悸煮"로 되어 있다.
- 2) 小豆大: 『廣注』에는 "如小豆大"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心下悸: 가슴이 두근거려 安定이 안되며 自制할 수 없는 증상.
- (2) 煉蜜: 熟淸이라고도 함. 꿀을 약한 불에서 물기가 없어지도록 졸인 것.
 - (3) 和 : 調味, 섞을 화
 - (4) 小豆大: 팥알 크기

【國譯】

가슴이 두근거려 安定이 안되며 自制할 수 없는 患者는 半 夏麻黃丸으로 主治한다.

半夏麻黄丸方

半夏 麻黄等分

以上의 두 가지 藥材를 가루를 내어 煉蜜에 반죽하여 小豆 大 크기로 丸을 만들어 三丸씩 하루에 세 번 服用한다.

【考察】

『傷寒論』에 있는 '心下悸'의 主治方은 小柴胡湯·茯苓甘草湯·眞武湯·桂枝甘草湯이 있다. 小柴胡湯은 少陽病에 心下悸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106), 茯苓甘草湯은 手足厥冷하면서 心下悸의症狀이 있을 경우에107), 眞武湯은 太陽病을 發汗시켰으나 낫지않고 오히려 亡陽이 되어 心下悸가 나타나는 경우에108), 桂枝甘草湯은 평소 心陽虛한 사람을 發汗을 過度하게 하여 心下悸가나타나는 경우에109) 사용하는 것으로, 心下悸의 原因은 心包가血虛하여 火旺한 경우, 腎水가 虛하여 心과 交濟하지 못하는 경우, 腎의 邪氣가 心을 凌蔑하는 경우, 心臟이 虛한 경우, 痰飮으로 인한 경우110) 등 다양하다.

半夏는 水飮을 除去하고, 麻黃은 發汗을 하므로111) 이는 단

순히 水飲을 除去하기 위한 目的이며, 또한 『金匱要略·痰飲咳嗽病脈證幷治第十二』에 "水飲이 腎에 있으면 心下悸한다"112)고하였고, "밥을 적게 먹고 물을 많이 마셔 心下에 水飲이 머무르면 심한 경우는 心下悸가, 輕微한 경우에는 短氣가 된다."113)고하였으니 原文에 비록 水飲에 대한 言及이 없지만 본 條文의 '心下悸'는 水飲으로 인한 것이다.

丸으로 만든 이유에 대하여 曹穎甫는 水氣가 오래되면 끈적 끈적한 濕痰이 되어 갑자기 感觸되 것과는 달리 쉽게 毛孔에 도달 하여 땀이 되어 다르고 緩慢하게 攻伐하기 위함¹¹⁴이라고 하였다.

14條. 吐血不止의 治療

【原文】

吐血不止者는 柏(1)葉湯主之1)라

柏葉湯方

柏葉 乾薑各三兩2) 艾三把(2)

右三味를 以水五升과 取馬通汁(3)一升으로 合煮取一升하야 分溫再服3)이라

【校勘】

- 1) 柏葉湯主之: 「桂林古本」에는 "柏葉湯主之 黄土湯亦主之" 로 되어 있다.
- 2) 乾薑三兩 : 『廣注』에는 "乾薑三兩炮"로 되어 있다.
- 3) 分溫再服:「桂林古本」에는"去滓 分溫再服"으로, 『心典』
- 『發微』에는 "分溫再服 千金加阿膠三兩亦佳"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柏: 椈也, 측백나무 백.
- (2) 把: 握也, 잡이 파.
- (3) 馬通汁: 말똥을 물에 타서 濾過시킨 물.115) 말똥을 通, 쇠 똥을 洞, 돼지똥을 零이라 한다. 똥은 반드시 廣腸을 지나서 나오 므로 通이라 한다. 白馬通의 氣味는 微溫하고 無毒하다. 吐血,下 血, 鼻衄을 그치게 한다.116)

【國譯

吐血이 그치지 않는 患者는 柏葉湯으로 主治한다.

柏葉湯方

柏葉 乾薑各三兩 艾 三把

이상의 세 가지 藥材를 물 五升과 馬通汁 一升에 넣고 一升 이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두 번에 服用한다.

【考察】

柏葉은 氣味는 苦하며 微溫하고 無毒하여 吐血과 衄血을 치료하고¹¹⁷), 艾葉은 性味가 苦辛하며 生用하면 溫하고 熟用하면

- 112) 金匱要略:痰飮咳嗽病脈證幷治第十二: 水在腎 心下悸
- 113) 金匱要略痰飲咳嗽病脈證幷治第十二: 凡食少飲多 水停心下 甚者則悸 微者短氣
- 114) 曹穎甫: 所以用丸者는 欲其緩以攻之니 蓋因水氣日久하면 化為粘滯之濕 痰하야 非如暴感之證하고 水氣尚淸易於達毛孔而爲汗也라
- 115) 陳紀藩: 馬通汁은 卽馬糞加水過濾取其汁而成이라
- 116) 李時珍目: 馬屎曰通이오 牛屎曰洞이오 猪屎曰零이니 皆諱其名也라 凡屎 必達嗣陽乃出 故昱曰通 曰胴이라…氣味 微溫無毒…主治止渴 止吐血下血 鼻衄金瘡出血이라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pp.1137, 1137

117) 李時珍: 氣味 苦 微溫 無毒…主治吐血衄血이라 李時珍: 本草綱目,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4, p.816

¹⁰⁴⁾ 魏荔洞: 此乃去芍藥加蜀漆者는 去其酸寒而益其辛溫也라

¹⁰⁵⁾ 魏荔洞: 龍骨牡蠣는 制逆上之血하고 而無走血驅邪之猛厲하니 所以治火 邪之良方也라

¹⁰⁶⁾ 傷寒論: 傷寒五六日 中風 往來寒熱 胸脇苦滿 默默不欲飲食 心煩喜嘔 或 胸中煩而不嘔 或渴 或腹中痛 或脇下痞鞭 或心下悸 小便不利 或不渴 身有 微熱 或咳者 小柴胡湯主之

¹⁰⁷⁾ 傷寒論: 傷寒 厥而心下悸者 宜先治水 當服茯苓甘草湯 却治其厥 不爾 水 漬入胃 必作利也

¹⁰⁸⁾ 傷寒論: 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 地者 直武湯主之

¹⁰⁹⁾ 傷寒論: 發汗過多 其人叉手自冒心 心下悸 欲得安者 桂枝甘草湯

¹¹⁰⁾ 陳修園: 悸病에 有心包血虚火旺者하고 有腎水虚而不交於心者하고 有腎 邪凌心者하고 有心臓自虚者하고 有痰飲所致者라

¹¹¹⁾ 曹穎甫: 用生半夏하야 以去水하고 生麻黄하야 以發汗하니 不治悸而悸當

自定の記

熱하고 止血하여 衄血과 下血을 치료하고¹¹⁸), 乾薑은 氣味는 辛 溫하고 無毒하며 胸滿咳逆上氣하고 溫中止血을 한다.¹¹⁹ 따라서 柏葉湯은 虛寒의 吐血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다.

吐血은 熱邪가 陽絡을 損傷시킨 것이면 당연히 淸熱하여야 하고, 勞倦傷으로 陽絡을 손상시킨 것이면 虛損된 것을 다스려야 한다. 柏葉湯은 溫散한 藥材로 구성되어 있으니 吐血에 寒凉한 藥 材를 사용하여도 낫지 않는 경우는 熱邪가 陰分에 潛伏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陰分에 潛伏되어 있는 熱邪를 宣發시키면 熱이 陽 分으로 돌아가 血이 熱의 逼迫을 받지 않게 되어서 止血된다.120)

15條. 遠血의 治療

【原文】

下血에 先便後血하면 此遠血(1)也니 黄土湯主之라 黄土湯方 亦主吐血衄血

甘草 乾地黃 白朮 附子炮 阿膠 黄芩各三兩 竈(2)中黃土半斤 右七味를 以水八升으로 煮取三升하고 分溫二服1)이라

【校勘】

1) 分溫二服: 「桂林古本」에는 "去滓 分溫三服"으로, 『廣注』・『發微』에는 "分溫三服"으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遠血: 便血의 하나로서, 肛門에서부터 먼 곳(小腸 또는 胃 등)에서 괴가 나오는 病症
 - (2) 竈 : 炊竈也, 아궁이 조.

【國譯】

下血에 大便이 먼저 나온 뒤에 出血이 되는 것은 遠血이니 黃土湯으로 主治한다.

黃土湯方 吐血과 衄血도 치료한다.

甘草 乾地黃 白朮 附子炮 阿膠 黃芩各三兩 竈中黃土半斤 以上 일곱 가지 藥材를 물 八升으로 三升이 되도록 달여서 두 번에 나누어 溫服한다.

【考察】

遠血의 症狀은 先便後血이고 出血部位는 胃로서 出血되어 나오는 經路가 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옛날에는 陰結이라 하였고 지금의 便血이 이것이다. 近血의 症狀은 先血後便이고 出 血부위가 大腸으로서 出血되어 나오는 經路가 가깝기 때문에 붙 여진 이름으로 옛날에는 腸澼爲痔下血이라 하였고 지금의 藏毒 또는 腸風下血이다.[21]122)

魏荔洞은 遠血의 原因을 心肝으로, 近血의 原因을 下焦血室 로 보았으나123), 많은 注釋家들은 遠血은 脾氣가 虛寒하여 血을

118) 李時珍: 苦而辛하며 生溫熟熱하며 可升可降하니 陽也라…止傷血…主衄 血下血이라 上掲書 p.408 統御하지 못하여 나타나고, 近血은 大腸이 濕熱에 損傷되는 것으로 보았다.124)

脾胃는 土에 屬하고 黃色이니 黃土는 助胃하는데 아궁이의 黄土는 더욱이 火氣를 얻었으니 火가 土를 生하는 것이다. 白朮 과 甘草는 모두 中土를 培植하고, 阿膠와 地黄은 陰血을 滋養하고, 黃芩은 淸熱하는데 肺經으로 들어가니 肺와 大腸은 表裏가 된다. 附子는 補血藥을 이끌어서 不足한 眞陰을 滋養하므로 溫經 逐濕125)하는데 사용한다. 따라서 遠血은 脾氣虛寒이 原因이 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料된다.

16條. 近血의 治療

【原文】

下血에 先血後便하면 此近血也니 赤小豆當歸散(1)主之라 方 見狐惑中이라

【字句解】

(1) 赤小豆當歸散: 赤小豆(赤小豆 三升을 물에 담가서 싹이 나오게 하여 햇볕에 말린다.) 當歸 三兩. 위의 두 가지를 공이로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漿水에 方寸ヒ만큼 복용하되 하루에 세 번복용한다.

【國譯】

下血에 먼저 出血된 뒤에 大便이 나오는 것은 近血이니 赤 小豆當歸散으로 主治한다. 處方은 「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 三」에 있다.

【考察】

赤小豆當歸散은 濕熱로 인하여 발생되는 狐惑病이 심하여 咽喉와 前後陰이 潰爛되며 目赤의 症狀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濕熱로 인하여 狐惑이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서「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의 경우는 潰爛部位가 주로 眼部인데 반하여 본 條文은 大腸을 포함한 肛門部位를 뜻하지만 病理機轉이 같기 때문에 渗濕淸熱하고 解毒活血排膿하기 위하여 赤小豆當歸散을 사용하였다.126)

17. 心氣不足으로 인한 吐血 衄血의 治療

【原文】

心氣不足**하**약 吐血衄血1)하면 瀉心湯主之라 瀉心湯方 亦治霍亂

大黄二兩 黄連一兩 黄芩一兩2)

右三味를 以水三升3)으로 頓服(1)之라

【校勘

- 1) 吐血衄血:「桂林古本」에는"吐血 若衄血者"로 되어 있다. 2) 大黄二兩 黄連一兩 黄芩一兩:「桂林古本」에는"大黄二兩
- 2) 大黃二兩 黃連一兩 黃芩一兩 : 「桂林古本」에는 "大黃二兩 黃連一兩"으로 되어 있다.

¹¹⁹⁾ 李時珍: 氣味는 辛溫 無毒이라… 主治 胸滿咳逆上氣 溫中止血이라 上掲書 p.690

¹²⁰⁾ 吳謙 等: 吐血之病에 熱傷陽絡하면 當清其熱하고 勞傷陽絡하면 當理其損 이라 今以柏葉湯溫散之品 而治吐血不止者는 則必是熱伏陰分이니 用此宣 發하야 使熱行陽分하야 血不爲熱所迫하면 則自止也라

¹²¹⁾ 李定: 血之來路遠 故豆 先便後血이라 … 血之來路近 故豆 先血後便이라 122) 吳謙 等: 先便後血은 此遠血也니 謂血在胃也라 卽古之所謂結陰이오 今之 所謂便血也라 先血後便은 此近血也니 謂血在腸也라 卽古之所謂腸澼爲痔 下血の오 今之所謂臟盡腸風下血也라

¹²³⁾ 魏荔洞: 遠血之下는 心肝血分受傷者가 深이라…近血之下는 下焦血室受傷者가 淺이라

¹²⁴⁾ 尤怡: 下血에 先便後血者는 由脾虚氣寒하야 失其統御之權하야 而血爲之 不守也라…下血에 先血後便者는 由大腸傷於濕熱하야 而血渗於下也라

¹²⁵⁾ 李炎: 脾胃屬土하고 色黄하니 黄土功能助胃하며 竈中之土는 更得火氣하 야 以火能生土也라 白朮甘草는 皆培植中土 2 阿膠地黄은 養陰血이 2 黄 苓은 清熱하고 入肺經하니 肺與大腸爲表裏也 2 附子는 能引補血藥하야 以養不足之眞陰 故로 用以溫經逐濕이라

¹²⁶⁾ 李允天: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에 대한 연구, 圓光大學 校 大學院, 益山, 2003, p.34

3) 以水三升: 「醫統本」,「桂林古本」,『心典』,『金鑑』, 『廣注』,『發微』에는 "以水三升 煮取一升"으로 되어 있어 國 譯은 이를 따른다.

【字句解】

(1) 頓服: 많은 量의 약을 단번에 먹는 것.

【國譯

心氣가 不足하여 吐血과 衄血을 하면 瀉心湯으로 主治한다. 瀉心湯方 霍亂도 主治한다.

大黄二兩 黄連一兩 黄芩一兩

以上의 세 가지 藥材를 물 三升으로 一升이 되게 달여서 頓 服한다.

【考察】

많은 注釋家들이 心氣不足은 心의 陰氣가 不足한 것이니 陰氣가 부족하면 陽氣가 偏盛하여 血이 熱의 逼迫을 받아 妄行 하여 그치지 않아서 吐血과 衄血이 된다고 하였으나127/128), 吳謙 은 '心氣不足'을 '心氣有餘'의 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여 心氣가 有餘하면 熱盛하게 되고 熱盛하면 陽絡이 손상 되어 血이 逼迫을 받아 妄行하여 吐血과 衄血이 되기 때문에 大 黃'黃連'黃芩의 大苦大寒한 藥材로 三焦의 熱을 곧바로 瀉하여 熱이 除去되면 吐血과 衄血이 그친다고129) 하였다. 心의 陰氣가 부족하면 陽이 偏盛하여 血이 妄行하여 吐血과 衄血이 되는 것은 같은 見解이지만 心의 陰氣不足보다는 熱이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는 瀉心湯이 養陰退陽하는 것으로서 大黃은 亢盛된 火를 除去하고, 黃連은 苦寒하여 心으로 들어가 使가 되며 또한 肝木을 瀉하여 木旺하여 火를 生하지 않도록 하며, 黃芩은 肺로 들어가 淸熱하여 金이 火의 逼迫을 받지 않게 한다. 頓服하는 이유도 火 勢를 꺾기 위함인 것으로130) 볼 때 瀉心湯은 瀉火淸熱하여 止血을 이루는 것이므로 吳謙 等의 解釋이 타당한 것으로 思料된다.

14燥의 柏葉湯과 본 條文의 瀉心湯이 吐血의 主治方으로 제 시되어 있는데 柏葉湯은 虛寒의 吐血을 치료하는 반면에 瀉心湯 은 熱盛으로 인한 吐血을 치료한다.

총괄 및 결어

『金匱要略·驚悸吐衄下血胸滿瘀血病脈證治第十六』은 驚悸 와 血證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비록 篇名에 '腹滿'이 있으나 이는 血證 가운데 하나인 瘀血에 隨伴되는 하나의 症狀이므로 따로 論述하지 않았다.

驚과 悸는 본래 다른 病證이므로 本篇에서는 1條에 "動則爲 驚 弱則爲悸"이라 하여 구분하였다.

127) 尤怡: 心氣不足者는 心中之陰氣不足也니 陰氣不足則陽獨盛하야 血爲熱 追하야 而妄行不止矣라

'驚'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바깥으로부터 刺戟을 받아 놀라는 것으로서 氣가 逆亂되기 때문에 脈도 따라서 일정하지 않게 搖動하게 되므로 動脈이 나타난다. 따라서 驚은 外因으로 인한 것이며, 實證에 屬한다.

'悸'는 外界로부터 아무런 刺戟없이 患者 自身이 가슴이 두 근거리는 것을 느끼는 自覺症狀으로서 氣血이 不足하여 心脈이 滋養되지 않아서 脈도 따라서 매우 軟弱하면서 沈細하고 無力하게 되므로 弱脈이 나타난다. 따라서 悸는 內因으로 인한 것이며, 虛證에 屬한다.

'驚'과 '悸'는 經過期間과 輕重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놀라게 되면 반드시 心悸가 발생하고, 心悸는 쉽게 驚恐하게되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驚悸'로 統稱하였으며, 後代에는 驚悸가 오래되도록 낫지 않으면 怔忡이 된다131)132)고 하여 驚悸와 怔忡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驚悸의 主治方으로 本篇에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 湯과 半夏麻黃丸을 제시하고 있다. 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龍骨救逆湯은 火邪로 인하여 心陽이 不足하여 神氣가 浮越하여 便血起队不安。驚狂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하고, 半夏麻黄丸은 水飲이 心을 凌蔑하여 心下悸의 症狀이 나타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驚悸의 原因을 心陽不足과 水飲으로 보았으며,後代에는 血虚의 痰으로 보았으며133), 瘦瘠한 사람은 血虚, 肥人은 痰飮으로 구분하기도134) 하였다.

驚悸의 治方으로 心膽虛怯한 경우에는 朱砂安神丸 · 鎭心丹 · 加味溫膽湯을, 思慮過多로 인한 경우에 清心補血湯 · 辰砂妙香散을, 氣血俱虛한 경우에는 養心湯을, 痰飲으로 火가 搖動하는 경우에는 二陳湯에 枳實 · 麥門冬 · 竹茹 · 黃連 · 梔子 · 人參 · 白朮 · 當歸 · 烏梅 · 薑三片 · 棗一枚를 加味하여 竹瀝 세 숟가락을 넣고 달여서朱砂末 三分을 타서 服用하고, 氣鬱로 인한 경우에는 交感丹 · 加味四七湯을 사용하였다.

본편에서 논술하고 있는 血證은 出血과 瘀血로 나뉘어지며, 出血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衄血・吐血・下血이 있다. 出血病證의 病理機轉에는 火熱이 血을 逼迫하여 妄行하는 것과 虛寒으로 氣 가 血을 統攝하지 못하는 두 가지 類型이 제시되어 있다. 비록 出血部位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顔色에 血色이 없다는 점 으로서 이는 出血病證의 原因이 陰血虛하기 때문이며 陰血虛함 으로써 陽熱이 偏盛되어 血을 逼迫하여 血이 妄行하여 出血이 되는 것으로 論述하고 있다. 따라서 出血의 病證은 發汗을 禁忌 하고 있으니 이는 『靈樞・營衛生會』에 "奪血者無汗 奪汗者無

¹²⁸⁾ 李定: 心氣不足은 乃心眞陰之氣不足也라 夫陰虚則陽亢火盛하야 迫血妄 行하야 以致吐血이라

¹²⁹⁾ 吳謙 等: 按刊대 心氣不足二字는 當是有餘二字라 若是不足이면 如何用此 方治之리오 必是傳寫之譌라 心氣有餘하면 熱盛也오 熱盛而傷陽絡하야 迫 血妄行하야 爲吐爲衄 故豆 以大黃黃連黃芩 大苦大寒으로 直瀉三焦之熱하 면 熱去而吐衄自止矣라

¹³⁰⁾ 李奖: 大黄은 泄去亢盛之火하고 黃連은 苦寒入心為使하며 又能為肝木하 야 不使木旺生火하고 黃芩은 入肺清熱하야 使金不受火爍이라 頓服之하야 以折火勢하니 此為養陰退陽之劑라

¹³¹⁾ 李梴: 怔忡者는 因驚悸久而成也라

¹³²⁾ 樓英: 驚者는 心卒動而不寧也오 悸者는 心躁動而怕驚也오 怔忡도 亦心動而不寧也라

¹³³⁾ 樓英: 怔忡은 大概屬血虛與痰이라

¹³⁴⁾ 許俊: 大概屬血虚與痰하며 痩人은 多是血虚오 肥人은 多是痰飲이라

¹³⁵⁾ 李芝: 血瘀則津液不布 故로 口燥오 内無實熱 故로 滅水不欲咽이라

¹³⁶⁾ 尤怡: 脈微大來遲는 血積經隧하면 則脈澁不利也라

¹³⁷⁾ 曹穎甫: 腹不滿은 無宿食也라

¹³⁸⁾ 李芝: 肝藏血하고 其經이 抵小腹하고 布脇肋하니 血瘀多在小腹脇肋二 處하면 與臍腹無干 故로 腹不滿 其人言我滿하니 以血瘀氣滯로대 疑為 腹滿耳라

¹³⁹⁾ 김동일 등: 재편집 東醫學事典, 도서출판 까치, 1990, p.688

¹⁴⁰⁾ 許俊: 凡病日輕夜重은 便是瘀血이라

¹⁴¹⁾ 李克光: 金匱要略譯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93, pp521, 522

血"이라 하여 血과 汗은 모두 陰에 속하여 根源이 같기 때문에 出血病證에 다시 만약 發汗시키면 더욱 亡陰이 重하게 되어 陽 熱이 더욱 偏盛하여지기 때문이다.

出血病證에 사용하는 主治方으로 柏葉湯·黃土湯·瀉心湯·赤 小豆當歸散이 제시되어 있다. 柏葉湯은 虛寒의 吐血을, 黃土湯은 脾氣가 虛寒하여 血을 統御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遠血에, 赤小豆 當歸散은 大腸이 濕熱에 損傷되어 생기는 近血에, 瀉心湯은 心陰 이 부족하여 陽熱이 亢盛하여 나타나는 吐血과 衄血에 사용한다. 다만 黃土湯을 遠血에만 사용하지는 않고 虛寒하여 생기는 吐血 과 衄血에도 사용할 수 있다.

後代에 衄血의 治方으로 莎芎散。三黃補血湯。鷄蘇散。陶氏生地苓連湯、清衄湯。解鬱湯、犀角地黃湯、麻黃升麻湯。保命生地黃散 등이 있으며, 吐血의 治方으로 葛黃丸。三黃瀉心湯、茯苓補心湯、大薊飲子、天門冬湯。側柏散 등이 있으며, 下血의 治方으로 胃風湯。平胃地楡湯、清腸湯、地楡散、加減四物湯、厚朴煎、酒蒸黃連丸 등이 있다.

'瘀血'은 惡血·衃血·蓄血·積血·死血·乾血 등으로 불리기도하는데 血液이 正常的으로 운행하지 않고 體內에 막히고 쌓여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病理的産物이다. 瘀血의 症狀으로 胸滿。唇痿舌靑·口燥'하지만 內部에 實熱이 없으므로'但欲漱水不欲嚥'하게 된다.¹³⁵⁾

'無寒熱'은 外感表邪가 없으므로 惡寒發熱하지 않는다.

'脈微大來遲'한 것은 血이 經隧에 쌓여서 脈이 껄끄럽고 圓 滑하지 않기 때문이다.¹³⁶⁾

'腹不滿 其人言我滿'은 宿食이 없으나¹³⁷⁾ 患者 스스로가 脹滿 하다고 말하면 瘀血이 있기 때문이다. 肝藏血하고 그 經脈이 小 腹에 이르러 脇肋에 分布하니 瘀血이 小腹과 脇肋 두 곳에 많으 면 宿食으로 인한 臍腹部의 脹滿이 없더라도 血瘀氣滯로 인하여 小腹部와 脇肋部가 脹滿한 것을 腹滿으로 誤認하는 것이다.¹³⁸⁾

瘀血의 증상은 원문에 제시된 것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얼굴이 검으며 피부가 靑紫色이고 거칠어지며 심한 통증이 일정한부위에 고정되어 있고 누르면 더욱 아파지고 大便이 검어지며심하면 健忘症과 미쳐 날뛰는 것¹³⁹과 日輕夜重¹⁴⁰⁾ 등의 변화가있으나 瘀血의 部位와 時間 및 程度를 막론하고 모두 舌에 反映되므로 後代의 醫家들은 '舌靑'의 症狀에 근거하여 瘀血을 診斷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⁴¹⁾

참고문헌

- 1. 張仲景 著. 趙開美 校刊. 仲景全書·金匱要略方論, 裕昌德書 局, 臺北, 1960.
- 2. 魏荔洞. 金匱要略方論本義.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7.
- 3. 尤怡. 金匱要略心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 4.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 5. 陳念祖. 金匱要略淺註. 綜合出版社, 台南, 1990.
- 6. 唐宗海. 金匱要略淺注補正. 力行書局有限公司, 臺北, 1994.
- 7. 曹家達. 金匱要略發微. 志遠書局,臺北, 2003.

- 8. 蔡仁植. 金匱要略精解.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大邱, 1982.
- 9.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 10. 陳紀藩 主編. 中醫藥學高級叢書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2000.
- 11. 王叔和. 影宋版 脈經. 東洋醫學研究院, 大板, 1981.
- 12. 巢元方 著·南京中醫學院編. 諸病源候論校釋. 人民衛生出版 社, 北京, 1983.
- 13. 孫思邈 著。李景榮 등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人民衛生出版 社, 北京, 1998.
-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講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5.
- 15. 王氷.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 16. 王燾. 外臺秘要,.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6.
- 17. 吳大眞 總編. 中醫辭海 上.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 18. 王懷隱 等. 太平聖惠方. 翰成社, 서울, 1978.
- 19. 朱肱. 增注類證活人書. 南山堂, 서울, 1987.
- 20. 朱橚 撰. 普濟方. 大星文化社, 서울, 1995.
- 21. 趙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 22. 王肯堂. 證治準繩.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 23. 中醫辭海 上. 吳大眞 總編.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9.
- 24. 李芝. 金匱要略廣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6.
- 25. 陶華.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 26. 許俊.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3.
- 27. 楊思樹·張樹生·傅景華. 中醫臨床大全. 北京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91.
- 28. 趙以德·周楊俊. 中國醫學大成·傷寒金匱分冊 金匱玉函經二注.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7.
- 29.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 30. 李允天. 『金匱要略·百合狐惑陰陽毒病證治第三』에 대한 연 구.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3.
- 31. 吳二秀. 『金匱要略·痰飲咳嗽病脈證幷治第十二』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4.

참고사전

- 1. 中醫研究院·廣東中醫學院. 中醫名詞述語辭典, 知識出版社, 香港, 年度未詳.
- 2. 張三植. 大漢韓辭典. 集文堂, 서울, 2001.
- 3.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 4.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 5.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 6.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香港, 1987.
- 7.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集文堂, 서울, 1991.
- 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까치, 서울, 1990.
- 9.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87.
- 10. 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增訂 韓醫學大辭典. 정담, 서울, 2001.
- 11. 蔡仁植·權賢德·邊元九. 漢方醫學用語大辭典. 癸丑文化社, 서 全 1983
- 12. 民族文化研究所. 中韓辭典. 高麗大學校, 서울, 1998.